

고위직 인사 '영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영남출신 편중 심화
호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만 인구비율보다 높아
인구 비율 보다 10% 이상 과다·과소 안되게 관리해야

서울대행정대학원 '공직인사' 포럼

정부 수립이후 역대 정권에서 지역 인구 비례 등 객관적인 기준이 도외시된 채 차관급 이상 정부직 공무원의 영남 출신 편중이 심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영남지역은 이승만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인구 비중에 비해 훨씬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남지역은 김대중 정부에서만 인구비율 대비 고위직 진출 비율이 높았다.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정부 권력기관장도 영남 출신 비율이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았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와 강해진 서울대 박사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인사' 학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

표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부직 공무원 3213명을 기준으로, 지역 파악이 가능한 314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부직 공무원들의 출신지·성별·전공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각 정부 정부직들의 평균 출생연도와 가장 가까운 때의 인구총조사 결과 등과 비교했다.

이를 보면 정부직 중 영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정부부터 감소하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3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까지 10%대 안팎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어섰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6.8%,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10%대로 낮아졌다. 충청출신 비율은 정권에 상관없이 10%대 중반을 유지했다.

각 지역출신 정부직 비율을 지역별 인구와 비교하면 대체로 영남지역은 인구에 비해 많은 정부직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

■역대 정부별 차관급~국무총리 지역 출신비율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기타
이승만 정부	20.14	12.01	20.14	5.30	14.84	7.07	0.35	20.14
윤보선 정부	7.47	8.05	23.56	16.09	14.94	0	1.72	28.16
박정희 정부	10.80	4.46	31.69	11.27	14.55	4.93	1.17	21.13
최규하 정부	12.99	10.39	29.87	12.99	12.99	6.49	1.30	12.99
전두환 정부	10.93	7.95	42.38	11.92	13.91	1.99	0	10.93
노태우 정부	10.36	8.21	40.36	9.64	14.64	5.00	0.71	11.07
김영삼 정부	9.52	7.84	43.70	14.01	15.41	2.24	0.56	6.72
김대중 정부	9.36	7.60	25.15	29.82	15.50	5.26	0.88	6.43
노무현 정부	11.82	5.75	36.42	27.16	10.54	4.79	0.32	3.19
이명박 정부	17.40	6.49	37.17	16.22	16.22	4.13	1.18	1.18
박근혜 정부	24.70	6.88	36.84	12.96	14.57	3.24	0.81	0

〈단위: %〉

타났다.

영남출신 정부직 비율과 영남지역 인구 비율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24.28%포인트)였고 이어 전두환(21.37%포인트)·노태우(19.35%포인트)·박정희(9.39%포인트)·최규하(8.25%포인트) 정부 순이었다.

이 차이가 마이너스 값을 보인, 즉 영남 지역 인구를 고려했을 때 정부직이 적게 배출된 때는 이승만(-2.16)·김대중(-6.28) 정부 때뿐이었다.

호남출신 정부직 비율과 호남지역 인구 비율 간 차이는 대부분 정부에서 마이너

스 값을 보이나 김대중(4.58)·노무현(2.74) 때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 차이는 현 정부 들어 -10.84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는 이승만 정부(-12.42) 다음으로 호남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호남출신 정부직이 적은 정부로 꼽혔다.

분석을 수행한 강해진 박사는 "지역 인구비율에 따라 정부직을 임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이 (인구보다) 10% 이상 과다·과소대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승자차'

박대통령측,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이정미 현재소장 측각 각하...3월 13일 전 선고 의지

최종 변론기일 27일로 연기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현재는 이를 즉각 각하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 단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대통령측이 무리한 지연 전술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미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

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이 재지정된 27일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려도 현재가 앞서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22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정미 현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특검 연장 '칼날 대치'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못한다" ... 사실상 무산
與野 오늘 특검법 처리 놓고 공방 ... 긴장 고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됨에 따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검연장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특검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주·정의당 이정미 등 야당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특검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러 서울청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일정상 문제로 야당 의원들과

의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국회의원·원의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여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여의치 않으면 23일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야당이 강경 대응할 경우 또 한 차례 정국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5·18 최후의 항전'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헬기 합동작전 벌였다 ▶6면



광주로 띄우는 그림 편지

완도 보길도 - 전현숙 ▶18면



교복 나눔 장터 22일 광주 남구청 1층 임대 매장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가 열려 신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이날 판매수익금 전액은 (재)남구장학회에 기부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 K-클래식의 대표주자
첼리스트 정명화 | 피아니스트 손열음 |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제작 WCN